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 개최

군, 20일 무주 등나무운동장출발 … 무주-영동-김천 일원 일주
자전거 동호인들의 잔치 · 무주홍보 및 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장거리 자전거 마라톤대회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가 20일 개최된다. 올해로 7회 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체육회와 네오플라이가 공동 주관하며 1천여 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그란폰도(130km - 총 라이딩 7시간 30분 예상)와 메디오폰도(70km - 코스 완주방식)로 치러질 예정으로, 선수들은 20일 오전 7시 무주 등나무운동장을 출발해 영동과 김천시 일원을 돌고 다시 무주로 들어오게 된다.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무주군은 공무원과 경찰, 자원봉사자(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등 370여 명을 현장운영 · 유도 요원으로 투입하며 당일 오전 7시부터 4시까지 무주읍 천지가든 입구에서 당산강변로 무주보건의료원 진입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차량통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최락돈 체육진흥 팀장은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는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레이스를 통해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라며 "동호인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대회 명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대회 개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란폰도'는 이탈리아어로 '긴 거리를 이동한다'는 뜻으로 유럽을 비롯한 각 국에서 자전거 마라톤 이벤트로 개최되고 있으며 아마추어와 프로 구분 없이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 7회 장거리 자전거 마라톤대회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가 20일 열린다.

장수사랑 가족화사업 수행인력 교육 실시

장수군, 25일부터 2차 SNS홍보마케팅 전략교육 진행

장수군은 15일부터 16일까지 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출향 가족에게 장수군의 소식과 농·특산물을 홍보함으로써 장수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복지 실현을 위한 '제1차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수행인력 SNS홍보마케팅 전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수사랑 가족화사업의 일환으로 ㈜브이에스엠그룹 이기용 대표가 강사로 초빙돼 15명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SNS 채널별 특징과 콘텐츠 활용, ▲카드뉴스와 이미지 저작권의 이해, ▲다양한 SNS채널의 콘텐츠 확산, ▲키워드의 이해와 활용 방법 등을 교육했다.

2차 교육은 오는 25일부터 25일, 3차 교육은 12월 6일에 진행하며 강사로는 원광대학교 이병학 교수, 트루팍프로덕션 박철우 대표가 함께 할 예정이다. 장수사랑 가족화사업 영상코디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카오스토리와 네이버밴드, ▲스마트폰을 이용한 블로그 및 페이스북 관리, ▲스마트폰 활용 마케팅, ▲1인 미디어 트랜드의 이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법, ▲1분 영상제작 실습 등을 교육을 통해 SNS 속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현식 기획조정실 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출향 가족들에게 장수군 소식과 특산물을 홍보해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은 15일부터 16일까지 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제1차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수행인력 SNS홍보마케팅 전략교육'을 실시했다.

제12회 무주 천마축제 개최

20일 무주군 안성면 생활체육공원 일원서

제12회 무주 천마축제가 오는 20일 무주군 안성면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오전 10시 안성면농악대가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저녁 8시까지 개회식과 지역동아리 문화예술공연, 화합행사,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세프 초청 천마요리 시연을 비롯해 천마음식 먹거리장터, 품평 · 시연회, 천마주 시음 및 담그기 체험, 생천마 전시 및 판매, 천마제품 전시 및 천마즙 시음, 천마재배 묘포장 재현 행사가 마련된다.

이외에도 작목반별 농산물 전시 · 판매, 할머니 장터도 축제를 찾은 타 읍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천마축제제전위원회 서정기 회장은 "무주의 가을을 만끽하시면서 안성면의 자랑 천마도 꼭 한 번 맛보시라"면서 "제12회 무주 천마축제를 건강한 축제, 즐거운 축제로 만들어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 천마축제는 지역의 특산물인 천마를 홍보 판매하는 계기를 만들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특화작목인 천마를 알리고 판로를 넓혀 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율무 수확 대행단 출동! 농가 효자손 역할 톡톡!

진안군 농작업 대행단, 율무 수확 한창

진안군 농작업 대행단이 농가들의 큰 호응 속에 율무 수확작업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진안군은 경운, 정지 작업부터 여름 사료작물과 밭작물 수확, 볏짚 결속 작업까지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른 농작물과 마찬가지로 율무 역시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제대로 크지 않아 쭉정이가 많고 작황이 좋지 않아 대부분 수확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업 대행료 인하 대책으로 기존 농·작업 대행료의 60%를 감면하면서 율무를 수확하려는 농가들이 분주해졌다.

특히 올해는 외부 대행업체 포기로 지난해 작업 규모인 14ha에서 올해는 군 전체 율무 재배면적의 80%인 26ha 면적을 작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소형 율무 수확기에 1억여 원의 군비를 들여 대형 율무 수확기 1대를 추가 구입하고 작업 인력도 2개조로 늘려 신청한 수확 작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안읍 하가막 마을의 송봉순 농가는 "재난과도 같은 날씨로 거의 수확을 포기하고 있던 상태에서 센터의 수확 작업 대행 서비스로 농작물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값지게 키워낸 농산물을 정성껏 수확할 수 있도록 농·작업단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청사준공식 전국노래자랑 유치

22일부터 예심 참가 접수

장수군이 군청사 준공식에 KBS 전국노래자랑이 열린다.

17일 장수군에 따르면 '풍요로운 미래, 힘찬 장수'의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11월 10일 예정된 군청 증축사업 준공식에 맞춰 의암공원에서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다.

전국노래자랑 유치는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군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전국노래자랑은 11월 8일 예심을 거쳐 선발된 15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며 본선 녹화는 10일 초청 가수의 축하 무대와 함께 오후 1시부터 의암공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예심 참가 접수는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 2일 오후 6시까지 장수군 재무과 세정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예선 접수를 못한 참가 희망자를 위해 예심 당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되며 접수인원이 많을 경우 장수군에 주소 소재자를 우선 원칙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문의는 장수군 재무과 세정팀(063.350-2220)에 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메아리

장수군, 삼남의병대장 제2회 김동신의병장 추모제 거행

(사)김동신추모사업회가 주최하고 장계덕유회가 주관한 제2회 김동신 의병장 추모제가 17일 오전 10시30분 장수군 장계면 동명마을 김동신 의병장 묘역에서 김재흥 장계면장과 유족,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추모제는 초헌관에 김재흥 장계면장, 아헌관에 김종문 장수군의회 의장, 종헌관에 정영모 장계덕유회장이 나서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장계덕유회 정영모 회장은 "이번 추모제는 김동신 의병장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향후 묘역 성역화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슬레이트 처리 앞장

진안군은 슬레이트 없는 진안군 만들기에 주력하며 주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학교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적정처리하고 있으나 개인건축물의 경우에는 고가의 처리비용 부담으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진안군은 2012년부터 마을 내 개인건축물을 대상으로 노후 지붕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해 매년 100개소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4억원을 투입하여 지붕슬레이트 총 902개소에 대한 적정 처리를 마쳤다. 또한 자연 재해 등으로 공유지나 마을에 방치된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피해 우려에 따라 2016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44,874㎡의 슬레이트를 4억 6800만원의 순군비를 들여 전량 처리했다. 진안군은 내년에도 지붕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확대해 국비지원 5억1200만원으로 155동 처리와 함께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개인이 지붕에 설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슬레이트 처리사업 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철거 및 포장하여 읍면에 신고하여 적정 처리토록 하고 포장된 슬레이트는 무상으로 처리한다고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